

투데이 칼럼

무장포고문 속에 신재효 판소리가 있다

무 장포고문은 1894년 3월 20일 고장 무장현 구수내 들판에서 4천여 명의 인근 주민들과 전봉준, 순회증, 김개남이 폐정개혁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한 글이다. 선언문은 동학농민혁명(이하 '혁명')의 시발점으로서 무장기포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더욱 새롭게 확 인시켜 주고 있다.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김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며, 군신과 부지는 가장 큰 인륜으로 꼽는다"로 시작되는 포고문은 "신하된 자들은 한갓 녹봉과 지위를 도모질해 차지하고 안으로는 나라를 둘는 인재가 없고, 바깥으로는 백성을 갈취하는 범아이자만이 들킬 거린다"며 부패한 탐관오리를 매섭게 질타한다.

그러나 이토록 위대한 글임에도 불구하고 현법 전문에 포함되지 못하는 등 아직도 위상이 정립되지 않아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빛는 여러 원인 중 하나는 "포고문이 조선왕조를 인정하고 있으며 중세 이데올로기를 벗어나지 못하였다"라는 견해다. 그렇지만 조선왕조의 본성인 전주성 점



전 민 종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장

령과 왕의 관료에 의한 통치를 거부하여 설치한 집강소 등 혁명 전 과정에서 보여준 많은 사건들을 생각하면 앞의 견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양반을 대하는 태도 같다. 양반과 사대부를 '협력자'로 끌어들인다. 판소리와 같이 동학이 양반 봉건사회 질서를 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시대 의식이 깨어난 이들이 거부감 없이 협조할 수 있도록 유교적 전통 기본윤리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런 결과로 혁명 전 과정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는다.

포고문이 판소리와 일치하는 점 몇 가지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임금을 대하는 태도가 같다.

'로'가 수집한 죄상 목록과 관군 자료 등을 근거로 "각 고을 수령을 비롯한 뜻있는 지식인들과 부자들이 나투어 혁명군에게 식량과 잠자리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셋째, 민중을 대하는 태도도 같다. 민중을 '자야'로 인식한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한결같이 호응하는 등 진한 연대의식을 보인다. 포고문과 판소리 모두 애민정신이 갈려 있다.

포고문도 당시 주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 시대의 산물이다. 그런데 조선 후기 전라도 특히 고장 일대에서 관의 감시를 벗어나 자유로이 민중 의식을 일깨우는데 있어 일등공신은 판소리만한 것이 없다. 한마디로 판소리가 대세이자 주류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생각해볼 때 포고문은 작·간접적으로 신재효 판소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을 통해 기포의 대의명분을 만천하에 드러낸 무장포고문이 그 동안의 오해에서 벗어나 동학농민혁명을 대표하는 선봉으로서 합당하게 평가받고 선양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두테르테 마지막 국정연설장 향하는 시위대



26일 필리핀 캐손시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각종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마지막 국정연설 할 장소인 하원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내년 임기가 끝나는 두테르테 대통령은 6년 단임제인 뒷에 대권 도전이 불가능해지면서 자신의 딸인 시라 두테르테 디바오 시장을 대선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미얀마 시위대 "친군부 미얀마 선수단 쫓아내라"



26일 2020 도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도쿄 국립경기장 밖에서 미얀마 국적의 시위대가 군부와 친군부 올림픽 선수단을 비난하며 행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미얀마는 이번 올림픽에 국민의 빈대와 비난 속에 2명의 선수가 배드민턴과 사격 종목에 참가했다.

사설

신문 발행부수 정책

국내 유일의 신문 발행 부수, 인증기관인 한국 ABC 협회에서 그동안 발행 부수를 부풀려왔다 는 의혹들이 제기돼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로 드러나면서 결국 정부가 ABC 협회의 조사 결과를 더 이상 광고비 집행에 사용하지 않기도 했다.

실제로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신문 뭉치들이 트럭에 실려 재활용 업체로 들어가는 일이 계속돼 왔다. 새 신문이 곧바로 폐지가 돼 계란판을 만드는 데 쓰이거나 포장지 용도로 해외 수출까지 되었다.

폐지로 수거업체들은 "베트남이나 파키스탄 같은 데는 옛날 우리처럼 신문으로 올대 고粱 같은 걸 싸고 있다"고 폭로했다. 발행 부수 조사 기관은 신문사들을 회원사로 둔 민간단체인 한국ABC협회다. 신문사와 배달 자국 등을 통해 발행 부수와 유료 수수료를 조사하는데, 이 조사가 부풀려지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지난해 나왔다.

문체부는 협회 조사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된다.

착한 밤상 20년간 3천원

20년 동안 한결 같이 백반 한 그릇에 3천원을 고수하는 착한 밤상가게가 있다.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한국은행 전주지점 건너편 전주문화원 옆에 자리한 〈한교자율식당〉이 그 주인공이다. 이 식당은 20년째 가격을 올리지 않고 밥값 3천원을 받고 있다.

이 식당은 부부가 함께 경영한다. 식재료는 모두 원주군 동상면에 있는 자신들의 농밭에서 싸여 나른다. 직접 재배한 것을 반찬으로 만들어 내놓는 것이다. 싸다고 해서 품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매일 정갈한 밤상을 셀프서비스로 차려 먹을 수 있다. 입구는 허름해 보이지만 일단 이곳 식당에 들어서면 항상 식사 준비가 되어 있다. 반찬은 10가지가 넘는다.

한교자율식당은 1999년 현재 이 장소에서 문을 열었다. 그 뒤 20년 세월이 흘렀다. 처음에는 인근 공무원 시험 준비생과 직업훈련원 원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다. 〈한교〉란 한국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교육생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곳에서 식사를 하는 수험생들은 대부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했다. 지금은 시험 준비생들의 발길이 뜸하다.

대신 인근 주민들은 물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특히 제 시간에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

계산하고 나오는 길에 맵 원짜리 동전 하나면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도 뽑아 마실 수 있다.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까지 서비스 단점이다.

반찬으로 가장 많은 것은 김치와 나물 등 푸성귀들이다. 모두 자연식이다.

체규분(60, 여) 주인 아주머니는 "이익이 많이 남지는 않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식단을 준비하겠다"고 말한다. 이곳은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연중 문을 연다. 추석날과 설날 당일에만 문을 닫는다.

사회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빼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